Digital & IT

'낚시문자' 주의보

오빠야 답장줘~ 낚였다면 114에 즉시 구제 요청하라

〈이통사 안내번호〉

"속칭 '낚시 문자'로 피해를 입었다면 휴대폰 114(이동 통신사 안내번호)로 전화해 납부거부를 요청하고 '소액결제'를 차단하세요."

최근 일부 콘텐츠 제공업체가 '오빠 저예요. 문자 좀 주세요' '저 기억 안나요?' 등과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후 상대방이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수천원~수만원까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결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절차를 몰라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통사 내용 확인 뒤 결제 차단, 피해 줄여

◇'114' 전화 한통이면 해결= 지난 26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3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 38곳을 차린 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려 117만 차례에 걸쳐 3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업체들은 '낚시 문자'를 보내 소비자가 유료 사진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 결제대행 회사를 통해 소비자의 이동전화 요금에 사진 한 건당 2천990원의 요금을 청구한다. 3천원 미만 소액결제일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콘텐츠 이용료를 2천990원으로 정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기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통신사 안내번호인 '114'로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낚시 문자'에 속은 것을 알고난 뒤 바로 이동통신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피해 금액을 내지 않도록 요금결제를 중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회사는 요금이 청구된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내용을 확인한 뒤 불법 사기사건으로 판명되면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기단은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피해를 덜 수 있다.

◇소액결제 차단하면 피해 줄일 수 있어= 낚시 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원천적인 방법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면 된다.

낚시 문자를 잘못 확인할 경우 자동으로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되는 데 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나 미성년자는 알고도 당할 수 있는 만큼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또 낚시 문자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통신사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privacy.html)나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spamcop.html)에 신고하면 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업체인 (주)탑알앤디가 최근 개발한 '친환경수륙양용전기자동차'.

첨단 자동차·로봇 총출동

오늘부터 DJ 센터서 광주 국제자동차·로봇전

환경친화적이면서 미래 디자인을 갖춘 첨단 자동차와 실생활에 필요한 첨단 로봇들이 광주에 총출동한다.

'2009 광주국제자동차·로봇전'이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미국, 일본 등 13개국 12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5개국 100개사보다 참가국과 업체들이 크게 늘었으며, 따라서 볼거리도 상당하다.

먼저 광주업체인 (주)탑알앤디의 '친환경수륙양용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를 통해 도로는 물론 수중에서 프로펠러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디자인을 달리한 3대가 이번 전시회에 선을 보인다. 로봇 중에는 현대로템이 개발한 '파이어파이팅'이 있다. 소방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화재현장에 들어가 불을 진압하는 소방방재로봇으로, 섭씨 700도를 견딜 수 있다. 그 외에도 각종 2천만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 로봇과 대당 7억원이 넘는 바이마흐, 그리고 미래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차 등도 전시된다.

이번 자동차·로봇전은 자동차 부품존, 완성차존, 그린카존, 로봇존 등 크게 4가지로 구역을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의 동선을 따라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자동차 부품존은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소속 (주)성진하이텍 등 10개업체와 광주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단체들이 참여해 자동차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광주디자인센터는 자동차, 로봇 디자인특별관을 운영, 자동차 디자인 개발과정을 보여준다. 그린카존에는 그린카클린시티 등 12개 업체와 전기자동차 분야 완성차 및 부품을 비롯해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차 등 미래형 친환경차를 대거 선보인다. 또 완성차존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스마트, 푸조, 볼보, 폭스바겐 같은 수입차을 비롯해 최신모델의 슈퍼카도 전시된다.

로봇존은 현대로템, 동일파텍, 유진로봇, 다사로봇, 이디 등 50여개 로봇협회 회원사 등의 로봇, 로봇소프트웨어, 부품이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연료전지 전기생산 핵심부품

MEA 국내 첫 개발

〈막전극접합체〉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막전극접합체(MEA)' 제작 공정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필름인 MEA 시험 생산에 성공,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제어 시스템과 함께 25인승 연료전지버스에 장착해 시험 운전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MEA 양산기술은 세계적으로 3M과 듀폰 등 일부 대기업만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에 성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특히 대용량 고분자 연료전지에 활용될 대면적 MEA를 생산해 50㎾급 연료전지 스택 모듈에 적용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인 양산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보였고 내구성은 20%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0㎾ 스택에 들어가는 MEA의 양도 대략 320개 수준으로, 기존 양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연료전지연구단 양태현 단장은 "이번 개발로 2013년경 약 5조 원 규모의 MEA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이스크림 묶음으로 사면 손해

낱개 구입보다 30% 비싸

대형마트에서 묶음으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은 낱개로 구입할 때에 비해 가격이 30%가량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8~9일 서울 지역 백화점 15곳, 대형마트 57곳 등 300개 유통매장에서 아이스크림 바류 5개, 콘과 펜슬류 5개, 컵류 4개 제품의 가격을 조사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소협은 대형마트에서는 바와 콘, 펜슬류 아이스크림을 대부분 묶음으로만 판매하는데, 개별 단가가 싸지 않다고 말했다.

권장 소비자가 750 원인 바 종류 중 A제품은 전체 조사대상 유통매장에서 평균 판매가격이 398 원인데 묶음 판매 평균가격은 521 원이고, B제품은 평균 가격이 397 원인데 묶음 가격은 532 원으로 각각 31%, 34% 비쌌다고 소협은 전했다. /연합뉴스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호아빈' 사업설명회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호아빈'은 다음달 10일 오후 4시 호아빈 상무점에서 광주·전남 지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베트남 쌀국수의 시장성 및 가맹점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으며 쌀국수, 월남쌈, 볶음면 등 호아빈의 메뉴 시식을 비롯한 창업을 위한 1대 1 현장 상담도 이뤄진다.

사전 신청자만 참여가 가능하며 전화로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31-904-7600.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